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3.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수도권은 방역 4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과 다음 8월 1일 주일, 8월 8일 주일은 부득이 오전 11시에 대면예배(최소인원-방송실, 재정부)와 영상예배(유튜브)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주 토요일(7/31) 청소년당은 청년부 목장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8/1) 주일간식담당은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6. 이번 주간은 부교역자들 여름휴가를 가집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예배기도(2부)		신태식 장로	서동운 장로	윤형근 장로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점심식사 No)		여선교회	여선교회	여선교회	로템목장(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1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권용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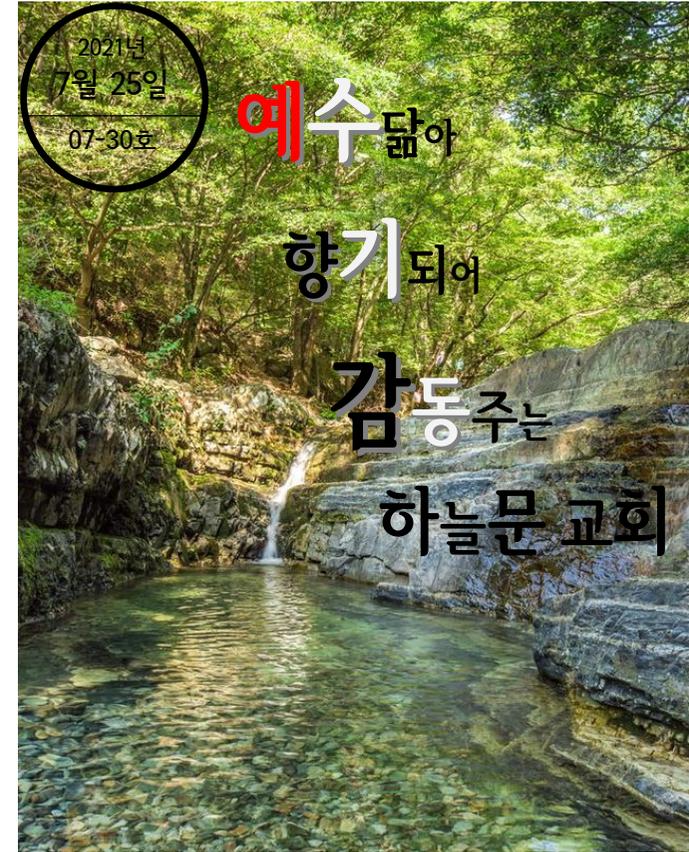


섬기는 이 ■ 부목사: 김묘상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 시무장로: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신태식



문의전화: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 \*성시교독 ..... 교독문 53번(시 121:1-8) ..... 다 같 이
- \*경배찬송 ..... 31장(통 46장) ..... 다 같 이
- \*참회기도 ..... 다 같 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 272장(통 330장) ..... 다 같 이
- 대표기도 ..... 신태식 장로

봉헌과 말씀

- 성경봉독 ..... 행 14:1-7 .....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 봉헌기도 ..... 인 도 자
- 말씀선포 ..... '사명서는 고난의파도를 즐긴다' ..... 김묘상 목사

친교와 축복

- 교회소식 ..... 인 도 자
- \*결단송 ..... '세상 흔들리고' ..... 다 같 이
- \*축도 ..... 김묘상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13:11 '준비하는 삶'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57)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회복의 자리는 어디에

현대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의술이 제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병의 원인조차 못 찾거나 치료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인 질병에서부터 후천적인 지병, 환경이 불행하여 생긴 정신적인 상처와 그로 인해 생겨난 미움과 관계의 어려움 등이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때로 신앙적인 체험이나 주변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통해 문제가 극복되는가 싶지만, 이후 사소한 시험에 넘어져서 다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부러진 육체를 가지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고질병을 치유할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이 여인이 고침 받기 직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한 회당입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입니다. 결국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병든 이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고달파도 구별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광명이 있음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완전한 회복과 치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불러 안수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유한하며, 지속되지도 못할뿐더러, 종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분만이 사랑하심으로 원수들을 이기셨고, 그분만이 생명과 사망의 췌바퀴를 도는 인생들에게 생사를 넘어서는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병마로 고통 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안수로 고침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여인은 구별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의 은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목도한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는 사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하여 연일 폭염으로 힘든 이 시기에 유일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묵은 상처를 치유 받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모든 이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